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23 JUNE
Vol.245

People First!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삼성 KPMG



구성원을 존중하는 삼성KPMG

People First!

철학자이자 동기부여 작가 앤드류 매튜스는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성KPMG는 구성원 모두가 일상의 즐거움을 느끼며, 소통과 배려 속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 가도록 ‘People First’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8년 연속으로 MZ세대가 가장 많이 선택한 삼성KPMG에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건강한 성장

04 Emerging Trends

M&A로 본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의 트렌드

06 Market Reader

오피스 시장의 지각변동:
라이프 사이언스(생명과학) 오피스의 부상

08 Team Story

전통의 명가
업계 최대 크로스보더 M&A팀

10 Client+

AI를 통한 리테일의 혁신
'인터마인즈'

12 Expert's Advice

EU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 시행,
우리 기업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14 알쓸사전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행복한 일터

16 People First

'제2회 삼성KPMG 챔피언십'
막이 오르다!

20 채용 특집 I - 삼성 First

People First! 삼성KPMG의 모든 것

22 채용 특집 II - 삼성인스토리

1년 차 삼성인의 성장 스토리

24 삼성동호회자랑

데구르르 행복을 굴리는
삼성 볼링 동호회 '데구르르'

26 KPMG Story

삼성인이 추천한
KPMG Value를 담은 작품은?

28 이동규의 두줄칼럼

Simple is beautiful

30 心 Care

내가 참은 감정은 어디로 갔을까?

32 Samjong News

'제10회' Advanced Auditor Program(AAP)
개최 외



08



16



22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 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M&A로 본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의 트렌드

최근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 내 M&A가 다수 이뤄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엔터테인먼트·미디어 분야를 음악, 게임, 영상, 웹툰·웹소설로 나누어 각 분야별 기업이 M&A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P(지식재산권) 강화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음악·엔터사의 M&A

음악 산업에서는 올해 초 크게 이슈가 되었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사례, 하이브의 미국 힙합 레이블 QC미디어 홀딩스 및 엔터사 이타카홀딩스 인수 사례 등 IP(지식재산권)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늘고 있다. 음악·엔터사는 이처럼 다른 엔터·음반사를 인수한 후 본사 산하에 다양한 제작사를 두는 멀티레이블 체제를 확대 중이다. 이를 통해 콘텐츠 비즈니스의 핵심인 IP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시장 저변을 넓히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음악·엔터 기업은 가상 공연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NFT(대체불가토큰) 비즈니스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에 투자하며 도래하는 Web 3.0 생태계에 대응하고 있다. 한 예로 2022년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등은 국내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사 람다256에 투자하며 블록체인 사업 전문성을 키

워 나가는 중이다. 한편, 사업 및 수익모델 다각화를 위해 음악 시장 외 게임 산업, 커뮤니티 플랫폼 등에 대한 투자 또한 이뤄지고 있다. 음원 저작권 조각투자와 같이 새롭게 형성된 시장에도 투자하며, 음악·엔터테인먼트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M&A를 통한 구독형 게임 입지 강화, 빅테크 기업의 게임 산업 진출

게임 산업에서는 게임 구독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며, 자사 게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퀄리티가 주요 경쟁 요소로 자리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는 각각 액티비전 블리자드, 번지, SRD 등 유명 게임사 인수를 추진하며 자사 플랫폼에 안정적 게임 콘텐츠 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메타버스, NFT 등 신기술과 관련된 게임 산업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게임산업 진출을 위한 M&A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 VR 기기 ‘메타 퀘스트(Meta Quest)’를 보유한 메타(Meta)는 다수의 VR 게임 개발사를 인수하며 게임 디바이스와 연계한 신작 게임을 공개했다. 국내 게임사도 NFT, 디지털 휴먼 등 콘텐츠 IP와 신기술을 연계한 신규 사업 다변화를 위하여 M&A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 확대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는 OTT(Over The Top,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의 이용자 유입 및 이탈 방지를 위해 우수한 콘텐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콘텐츠 역량 강화를 위한 제작사 인수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아마존의 MGM 인수, 디즈니의 21세기 폭스 등 글로벌 주요 인수 사례와 더불어 국내 콘텐츠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CJ), 에스엘엘중앙(JTBC)은 영화, 드라마 제작사 등을 적극 인수하며 자사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에 나섰다.

또한 해외 OTT 플랫폼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에 투자를 진행하고, CJ ENM과 에스엘엘중앙이 미국 콘텐츠 제작사를 인수하는 등 글로벌 트렌드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국경을 넘어선 인수도 다수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티빙(CJ)이 케이티시즌을 인수하는 등 OTT 플랫폼 기업 간의 M&A 사례도 관찰된다.

M&A를 통한 글로벌 웹툰·웹소설 시장 공략, AI 기술력 강화

웹툰 산업은 글로벌 시장 공략에 적극적이다.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미국 웹툰·웹소설 플랫폼 우시아월드, 타파스, 래디쉬 등을 인수했고, 네이버웹툰은 북미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를 인수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인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주요 빅테크 기업 애플, 아마존 등이 웹툰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어서 M&A를 통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웹툰·웹소설 기업들은 또한 AI(인공지능) 기술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8월 AI 큐레이션 전문 국내 스타트업 마이셀러스 지분 인수를 통해 취향 기반의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도입했다. 네이버웹툰의 경우 2019년 12월 AI 기술 기업 비닷두 인수와 함께 조직 내 AI 전담 조직을 구축하며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관련 AI 연구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무형자산인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이 M&A를 통해 다양한 분야와 접목되고 시장 범위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 향후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 엔터테인먼트·미디어 기업이 열어갈 다채롭고 창의적인 미래의 모습이 기대된다.

음악 산업의 M&A 트렌드

① 지식재산권(IP) 강화를 위한 M&A

콘텐츠 기업들의 국내·외 IP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 지속

② AI(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

AI를 활용한 음악, 목소리 제작·편집 기술 고도화 등 제작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 기술기업에 투자 활성화



음악 산업 관련 M&A

③ Web 3.0(메타버스,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투자

메타버스 플랫폼, 가상의 아바타 제작을 통한 가상 콘서트 구현, 음원·아티스트 관련 NFT 사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

④ 사업 다변화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

엔터사의 커뮤니티 플랫폼 사업, 게임 사업 등 수익모델 다각화 움직임 및 음원조각시장 등 새롭게 조성된 시장에 대한 투자 증대

영상 콘텐츠 산업의 M&A 트렌드

① 콘텐츠 규모의 경제 실현 위한 영상 콘텐츠 보유 기업 간 M&A

-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락인(Lock-in) 할 수 있는 콘텐츠 규모를 실현하기 위한 M&A 진행
- 대형 OTT 플랫폼 간의 합병을 통한 콘텐츠 규모의 확대 도모 및 대형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대형 영상 콘텐츠 제작 기업과의 M&A 발생

② 콘텐츠 제작 역량 확보를 위한 스튜디오 인수

· 영상 콘텐츠 제공 기업이 자체 콘텐츠 제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콘텐츠 스튜디오를 적극적으로 인수



영상 콘텐츠 산업 관련 M&A

③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현지 콘텐츠 플랫폼 및 제작사 인수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현지 스튜디오 인수 활발

Source : 삼정KPMG 경제연구원

CONTACT US

Deal Advisory 5본부
김양태 상무

Tel. 02-2112-7585
E-mail. ykim32@kr.kpmg.com

경제연구원 류승희 선임연구원

Tel. 02-2112-7469
E-mail. seungheryu@kr.kpmg.com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시장의 지각변동: 라이프 사이언스(생명과학) 오피스의 부상

지난 몇 년간 상업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유오피스는 2017년 약 600억 원 규모에서 2022년 7,700억 원 규모로 12.8배 성장했다. 이렇듯 급격하게 양적인 성장을 보여왔던 공유오피스가 최근 질적인 성장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각 산업 특성에 맞는 인테리어 및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형성을 도와주는 특화 오피스가 등장해서다. 이번 호에서는 특화 오피스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 현황과 특징, 그리고 최근 주목받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는 무엇인가?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Life Science Office)란 바이오테크놀로지, 제약, 의료 기기 등의 라이프 사이언스 산업 분야에서 연구, 개발, 생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부동산으로 실험실과 사무공간을 합쳐 놓은 형태의 오피스이다. 소규모 스타트업부터 대형 헬스케어·리서치 협회 및 기관, 다국적 바이오 기업 등이 잠재 임차기관으로 입주해 운영된다.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 부동산 개발은 일반적인 상업용 부동산 개발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 오피스와는 평면 구성이나 시설 요건에서 차이가 있다.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50% 내외가

실험실, 그 외 공간은 사무실로 구성되는데, 입주하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실험실은 특수 장비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오피스보다 더 넓은 개방형 공간이 필요하다.

더불어 실험실의 의료기기 및 특수장치 사용을 위해서는 전문화된 기초 지반공사가 필요하기도 하다. 특히 무거운 실험 장비를 지지해야 하므로 바닥이 견고해야 하고, 정밀한 실험이 가능하도록 진동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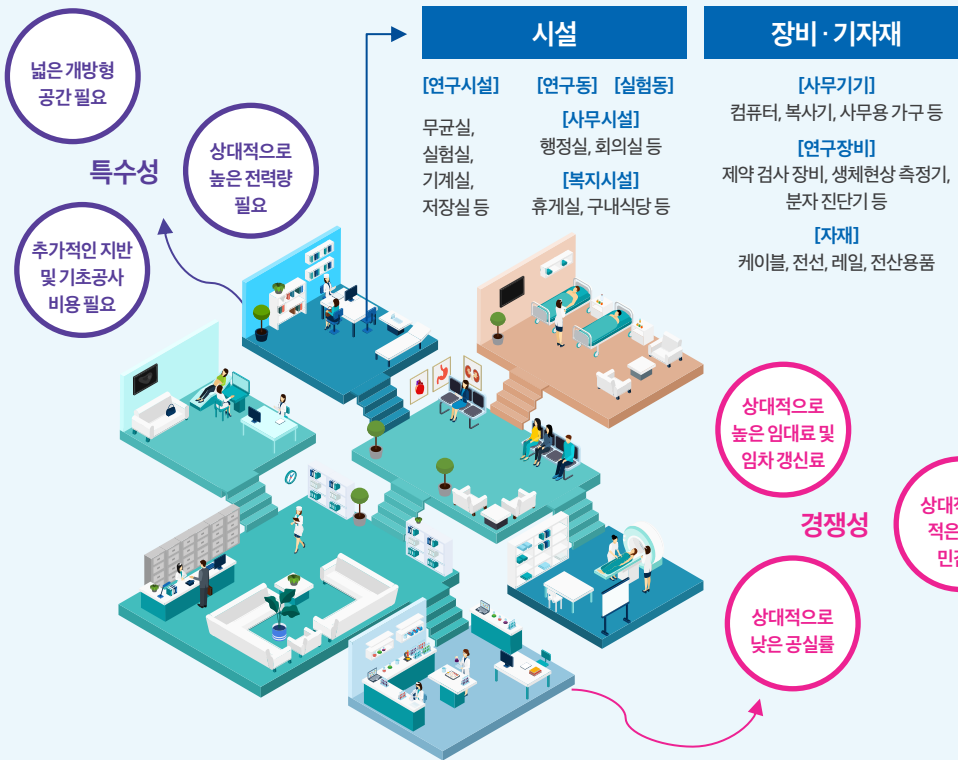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실험과정 속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풍·환기 시스템이나, 갑작스러운 정전 등의 문제로 약품의 변질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보조 전력원도 필요하다. 이처럼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 부동산 개발은 높은

기술적 요건 및 안전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에 초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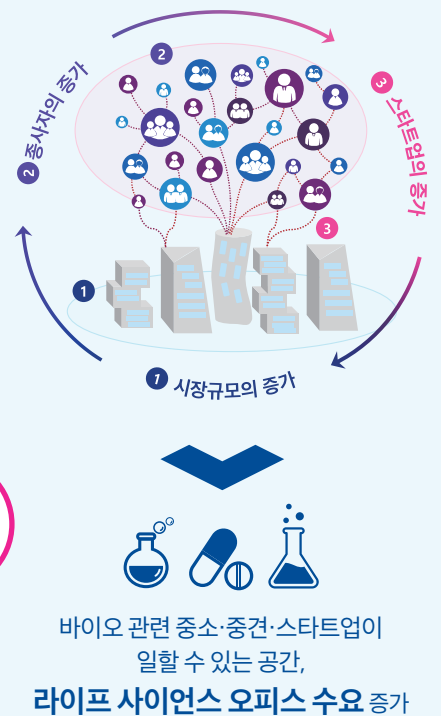
하지만 투자 비용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는 다른 상업 부동산 대비 장기 임대계약, 안정적인 임대 수요 등의 경쟁력을 갖는다.

입주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바이오·의료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러한 장비를 이동하는 이전 비용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장기 임대 계약을 선호한다. 무엇보다 글로벌 전염병, 노령화 등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제약업계의 연구시설 확충 수요가 확대되면서 라이프 사이언스 산업이 향후에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의 개념 및 특징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의 수요 증가



Source : 삼정KPMG 경제연구원

왜 우리는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에 주목해야 할까?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의 수요를 이끄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바이오산업의 급격한 성장이다. 전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5,04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추세로 2027년까지 연평균 8.8%로 성장해 2027년에는 9,114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 2021년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는 20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바이오 관련 인력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 인력은 2017년부터 연평균 5.5%로 증가해 2021년 5만 5,617명을 기록했으며, 고용 증가율은 2010년 대비 2020년 61.7%로 매우 큰 수치로 증가했다. 바이오 분야의 특성상 기술 혁신이 곧 신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스타트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 투자도 활발하다. 국내 업종별 벤처캐피탈 신규 투자 금액을 살펴보면 바이오 의료 분야가 2021년 1조 6,770억 원으로 전체 투자의 21.8%를 차지하며 ICT서비스 분야 다음으로 많은 투자를 받았다.

이렇듯 연구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바이오산업에 맞춰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 생태계를 구축해서 기회를 선점해야 할 때이다. 특히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 입지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유관 산업들의 집적이다. 이에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는 병원, 대학,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등 유관 산업의 집적 경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입지해야 한다. 이처럼 밸류체인상에 있는 관련 기업들이

공간적으로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게 되면 상호 정보를 교류하며 기술 혁신과 정보 확산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 라이프 사이언스 산업에 특화된 노동시장에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기업부동산서비스팀
진형석 전무
Tel. 02-2112-7745
E-mail. hyungseokjin@kr.kpmg.com

경제연구원 강민영 책임연구원
Tel. 02-2112-6617
E-mail. minyoungkang@kr.kpmg.com



전통의 명가! 업계 최대 크로스보더 M&A팀

최근 국경을 넘은 크로스보더 딜(Cross-border deal)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삼정KPMG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등 성공적인 M&A(인수·합병)를 돕기 위해 업계 최대 규모의 M&A팀을 구성하고 있다.

크로스보더 M&A팀 주요 서비스

- ① 국내 고객의 해외 투자 Outbound Deal 인수 자문
- ② 국내 고객의 해외 자산 매각 자문
- ③ 해외 고객의 국내 투자 Inbound Deal 인수 자문
- ④ 해외 고객의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자산 매각 자문
- 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해외 JV 설립 자문
- ⑥ 인수 대상 회사에 대한 실사 및 가치평가



전통의 강자! 명실상부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크로스보더 M&A팀

**국경 넘은 크로스보더 M&A 활발
구체적 전략과 철저한 실사로
사전 리스크 파악해야**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 원자재법(CRMA) 등으로 국제 경제 질서는 재편되고 패권을 쥐기 위한 힘겨루기가 완연하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기차(EV) 및 EV 배터리, 2차 전지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지리적, 외교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를 반영하여 국내 업체의 미국, 유럽 지역 진출 니즈(Needs)는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외 우수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및 투자수요는 증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제약&진단/바이오/식품/자원 분야에서 좋은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시장의 한계는 분명하기 때문에, 크로스보더 M&A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영업망 및 해외 생산거점, 원천기술의 확보 및 신사업 진출 기회로 크로스보더 M&A를 활용하는 가운데 성공적인 크로스보더 M&A를 위해서는 구체적인(Cross-border) 전략과 철저한 실사를 통한 사전 리스크를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인수 후 통합(PMI)을 통한 계획된 시너지를 실현해야 한다.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전략부터 PMI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삼정KPMG는 2002년 업계 최초로 크로스보더 TS(Transaction Services)팀을 설치했고, 2008년 크로스보더 M&A팀을 확대 설치하여 업계를 선도해왔다. 20년 이상의 full time 전문팀의 풍부한 경험으

로, 국내외 기업의 크로스보더 딜을 조력하며 전통적인 M&A 자문 업무 범위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전략, 회계, 세무, 인수 후 통합(PMI) 등을 한 번에 담당하는 원스톱(One-Stop) 솔루션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삼정KPMG 크로스보더 M&A팀의 강점은 143개 국가에 소재한 KPMG Office만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 기업 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른 국가 KPMG 오피스와의 긴밀한 협력과 Global Practice에 부합하는 M&A 거래 진행 지원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국가 간 법률/제도적 차이와 문화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M&A 이슈 등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호주, 독일, 미국, 영국, 남미 등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생활하여 원어민 수준으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팀원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다채로운 경력을 바탕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팀이다.

크로스보더 M&A에서의 BTS가 될 것!

크로스보더 M&A팀은 고객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크로스보더 M&A 자문 전문 조직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이 더 많은 크로스보더 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해외 딜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M&A 전망을 논할 때, 한국 투자자와 한국 M&A 시장이 빠지지 않고 소개되기를 바라며, 크로스보더 M&A 자문에서 BTS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크로스보더 M&A 팀은 Better, Together, Stronger(BTS) 슬로건 하에 더욱 발전하고, 항상 함께하며, 지속적인 강자가 될 것이다.

| 크로스보더 M&A팀의 각오 한마디



“한국은 글로벌 M&A 시장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능력도 갖추었습니다. 우리 팀은 크로스보더 M&A가 생소하였던 20년 전부터 한국 기업을 지원하며 한국 기업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업계 최고의 우수한 인력과 강력한 네트워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에, 고객의 M&A 전략 수립부터 실행, 인수 후 통합작업(PMI)에 이르기까지 M&A의 전 과정에 있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더욱 부합하겠습니다.”



“한국을 넘어 해외 M&A 시장의 교두보가 된다는 점이 우리 팀의 매력입니다. 우리 팀은 선제적인 딜(Deal) 아이디어를 발굴해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발굴부터 고객과 함께하는 자문 그룹입니다. 여러 지역과 다양한 분야에 걸쳐진 솔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 혼연일체가 되어 성공적인 거래 종결을 이끌겠습니다.”



“우리 팀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과 창의성입니다. 먼저, 언어와 문화, 경력, 성별에 있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수동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가 아닌 좀 더 새롭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KPMG의 해외 오피스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이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로 글로벌 시장 변화에 고객들이 대응하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한 리테일의 혁신 '인터마인즈'

인터마인즈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유통 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스타트업이다. 딥러닝과 컴퓨터 비전, 센서 기술 등을 활용해 일명 '스마트 리테일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형 아마존 고를 지향하는 AI 토털 무인화 솔루션 전문기업 인터마인즈를 만나본다.

InterMinds



1

한국형 '아마존 고' 꿈꾸는 리테일 무인화의 선두주자

인터마인즈는 딥러닝, 컴퓨터비전, 센서퓨전 기반의 영상, 이미지 인식 전문 인공지능 회사로 유통업계의 DX(무인화)를 주도하는 AI 기업이다. 인터마인즈는 모두에게 특별한 솔루션이 아니라 특별한 누군가에게 전부가 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가는 기업으로 AI를 통한 리테일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2016년 8월 설립을 시작으로 농협, 롯데정보통신, 신세계I&C, 이마트, BGF리테일, GS리테일 등 유통 대기업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유통영역의 DX를 이끌고 있다. 아울러 국내 유일 상용화된 AI 무인매장 기술을 통해 리테일 무인화의 선두주자로 달려 나가고 있다.

InterMinds

수상 내역

- 2017 인천스마트물류 창업 공모전 우수상 수상
- 2018 대한민국 리딩기업대상 기술혁신 대상 수상
- 2019 대한민국 인공지능대상 유통상 수상
- 2022 대한민국 인공지능대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상 수상

투자 현황

- 2019.07 이마트 신세계 I&C Pre-A 투자 15억 원
- 2020.05 스톤브릿지벤처스 Series-A 투자 15억 원
- 2021.02 스톤브릿지벤처스 Bridge-B 투자 20억 원
- 2022.06 Series-B 투자 70억 원(스틱벤처스, IBK은행, 삼성증권, KT&G)
- 누적 투자 총 120억 원



2



3

인터마인즈는 회사의 별칭을 시플레이그 라운드라고 지은 것처럼 구성원이 놀이터에서 놀 듯 업무를 하면서 성취감도 얻어갈 수 있는 회사가 되자는 것을 모토로 삼았다. 이에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내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으며 불가능은 없다는 경영 철학 아래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리테일 영역의 무인화 토탈 솔루션 제공

인터마인즈는 리테일 영역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시각 인공지능과 센서퓨전 기반의 무인화 솔루션인 ‘스토어팝’과 ‘도어팝’을 상용화했다.

스토어팝은 미국 최대 커머스 기업 아마존의 Just Walk Out 기술을 국내 최초 상용화한 솔루션이다.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찍고 무인 매장 입장한 고객은 자유롭게 쇼핑 후 결제 없이 나가면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핵심 기술은 인터마인즈의 Vision AI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센서이다. 천장에 설치된 카

자체적 원천 기술 확보 및 핵심 솔루션 고도화를 통해 국내 유일시 리테일 무인화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



메라의 Vision AI 알고리즘을 통해 무인 매장 내 소비자의 행동을 트래킹하여 모든 움직임 탐지한다. 카메라의 영상만으로 탐지할 수 없는 부분은 하드웨어 센서를 사용하여 상품 인식률을 높였다.

그 결과 나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본원에 CU, KISA와 협력해 런칭한 인공지능 무인 매장에서 결제 정확도는 99% 이상을 달성했다. Vision AI 기술력으로 무인 매장화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경쟁 업체인 Aifi 또는 Amazon Go는 20평 기준 최대 100개를 웃도는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정상적인 무인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마인즈는 10평 정도의 매장 규모는 10개 미만의 카메라만으로도 운영 가능하여 해외 경쟁사 대비 대폭 저렴한 가격으로 무인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현재 후지쯔 본사에 위치한 CU 편의점에 추가 출점해 운영 중이며 스토어팝 기술력을 활용한 무인 매장을 연내 4~5개의

출점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도어팝은 스토어팝의 여러 기능들이 마이크로화된 자판기 형태의 무인판매기이다. 도어팝에 부착된 결제 모듈 또는 앱을 통해 개인인증 후 물건을 꺼내고 문을 닫기만 하면 도어팝 내 Vision AI와 무게 센서를 통하여 구매 상품을 판단하고 구매내역을 자동으로 결제해주는, 상품의 인아웃만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인공지능 무인 판매기라고 할 수 있다. 도어팝은 현재 규제 샌드박스 특별 받은 업체와 협력하여 무인 주류 및 담배 판매도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형태의 편의점 및 일반 무인 매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편의점 외에도 호텔, 카페, 캠핑장, PC방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 중에 있다.

이러한 스토어팝과 도어팝 외에도 인터마인즈는 리테일 무인화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누구나 쉽고 편하게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토탈 무인화 리테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1.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인터마인즈 본사, 사내에 무인 매장도 오픈했다 2. BGF리테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KISA 나주 본원에 오픈한 CU 매장 3. 제주 글래즈하임 호텔에 설치된 스마트 냉장도 도어팝(door pop) 4. 이마트24 태안읍내원룸점에 운영 중인 무인 주류 자판기 도어팝(door pop)

EU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 시행, 우리 기업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올해 1월 유럽연합(EU) 역내 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EU 역외보조금 규정이 정식 발효됐다.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골자는 EU 내 기업 결합 또는 공공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이 EU 역외의 제3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EU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경우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려 한다.



SCG 박원 상무

Tel. 02-2112-0823
E-mail. wpark@kr.kpmg.com

<이 칼럼은 지난 4월 6일 게재된 한국경제 CFO Insight 'EU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 시행,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은?'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Q EU 역외보조금 도입에 우리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EU 역외보조금 규정 시행 시 우리 기업이 가장 먼저 당면하게 될 장벽은 바로 '사전 신고'입니다. 올해 10월 12일부터 EU 내 기업결합 또는 공공 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제3국으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 내역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정적 기여'란 정부 또는 정부에 귀속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공공단체나 민간기업이 ① 자금 또는 부채를 이전해 주거나 ② 세금 등 받아야 할 수입을 포기(면제)하거나 ③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정부 기관이 아닌 공기업 등 공공단체나 민간기업이 재정적 기여를 제공하더라도, 당해 행위가 정부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등 정부 행위로 볼 수 있을 경우 규제 대상 재정적 기여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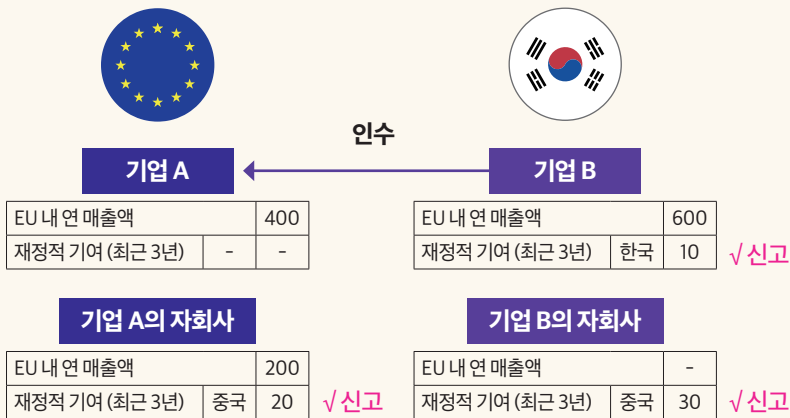
Q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먼저, 기업결합의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매출액과 재정적 기여의 총액 산정 시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결 실체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기업(기업 B)이 EU 내 설립된 기업(기업 A)을 인수하는 경우를 예시로 사전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대상 재정적 기여 내역을 보면, 우리 기업인 기업 B가 인수 기업이므로 사전 신고의 주체는 우리 기업 B가 됩니다.

인수 대상 기업인 기업 A의 EU 내 연 매출액이 4억 유로로 매출액 기준 미만이지만, 기업결합의 당사자 기업 A와 기업 B의 재정적 기여 총합은 1천만 유로로 당사자만 보면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 A의 자회사의 EU 내 연 매출액이 2억 유로이므로 기업 A의 연결 실체 총매출액은 6억 유로가 되어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기업 A와 B의 자회사가 수취한 재정적 기여 합산 시 재정적 기여 총액은 총 6천만 유로가 되어 재정적 기여 요건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업 B는 자사의 연결 실체와 기업 A의 연결 실체가 수취한 최근 3년의 재정적 기여(미소기준 이상)에 대해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공공 조달의 경우, 추정가액이 2억 5천만 유로인 공공 조달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중 당해 컨소시엄 내 주요 업체(주 공급자, 하도급업체 중 입찰가액의 20% 이상을 공급하는 업체)가 한 국가로부터 최근 3년간 총 4백만 유로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수취한 경우,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주 공급자가 사전 신고의 주체가 되며, 국가별 총액 4백만 유로 이상의 재정적 기여 내역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단위 : 백만 유로)



<사전 신고 대상 여부 검토>

- 매출액 요건: 기업 A의 연결 실체 매출액 합계 총 6억 유로 -> 해당
- 재정적 기여 요건: 기업 A의 연결 실체 + 기업 B의 연결 실체 재정적 기여 = 2천만 + 4천만 = 총 6천만 유로 -> 해당
- 기업 B는 기업 A의 자회사, 기업 B의 자회사가 받은 보조금 내역까지 모두 신고해야 함



Q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기한 내 사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우회할 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대상기업의 직전 회계연도 총매출액의 5%, 공공 조달의 경우 10%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매출액은 사전 신고 대상의 요건을 따질 때와 마찬가지로 대상 기업의 연결 실체까지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사전 신고를 하였으나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도 총매출액의 1%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기업결합 및 공공 조달 사전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양이 매우 방대하며, 더불어 완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자료 준비 기간이 짧아 누락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재정적 기여'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경제 활동도 규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계관세 조사에서 보조금으로 판단된 재정적 기여를 참고하여 검토해야 할 재정적 기여를 목록화하고, 이를 통해 연결 실체 내 개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재정적 기여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이제 막 MZ세대에게 적응했는데,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규제법을 통과시키며 이목을 끌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에 새롭게 탄생한 용어들에 대해 세밀히 살펴본다.

MZ세대 이후 알파세대가 온다

알파세대

최근 MZ세대에 이어 알파(Alpha)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MZ세대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 세대를 의미하면, **알파세대는 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를 의미**해요. 이들은 주로 X세대(1970~1980년대 출생) 및 Y세대(밀레니얼 세대)의 자녀들이고, Z세대의 동생이며, 베이비부머의 손자, 손녀들이라고 합니다. 알파세대의 특징은 다른 세대와 달리 순수하게 디지털 세계에서 나고 자란 최초의 세대로, 아날로그 경험이 없는 첫 세대입니다. 인공지능(AI)으로 말을 배우고 태블릿 PC를 끼고 살며, 스마트 스피커로 음악을 듣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스트리밍으로 콘텐츠를 즐기며 성장해요. 서울연구원 등 자료에 따르면 **알파세대를 타겟으로 한 키즈 산업은 2007년 19조 원에서 2017년 40조 원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성장했다고** 해요. 오는 2025년에는 세계 알파세대 인구가 22억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이는 이들의 조부모인 베이비붐 세대를 추월한 숫자인데, 이렇다 보니 미래 먹거리로 삼아 이 세대를 위한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세계 최초 가상자산 규제법 생겼다

미카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세계 최초 가상자산 규제법이 생겼어요. 최근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s)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어요.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는 포괄규제법이 마련된 것은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인데,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잃을 경우 가상자산 제공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가상자산 플랫폼 운영과 관련한 위험을 투자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새로운 코인 판매도 규제 대상이 돼요. USDC 등 스테이블 코인의 일일 거래액은 2억 유로(약 2천900억 원)로 제한되며 플랫폼 사업자들은 대량 인출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해요. 가상자산 플랫폼이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유럽증권시장국(ESMA)이 직접 개입해 플랫폼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어요. 한편, **미카 법안 이 통과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규제법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요.



Happy workplace



People First

'제2회 삼성KPMG 챔피언십' 막이 오른다!

16

채용 특집 I - 삼성 First

People First! 삼성KPMG의 모든 것

20

채용 특집 II - 삼성인스토리

1년 차 삼성인의 성장 스토리

22

삼성동호회자랑

데구르르 행복을 굴리는
삼성 볼링 동호회 '데구르르'

24

KPMG Story

삼성인이 추천한
KPMG Value를 담은 작품은?

26

이동규의 두줄칼럼

Simple is beautiful

28

心 Care

내가 참은 감정은 어디로 갔을까?

30

Samjong News

'제10회 Advanced Auditor Program(AAP)'
개최 외

32

원문하인터

‘제2회 삼정KPMG 챔피언십’ 막이 오르다!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돌아온 ‘제2회 챔피언십’의 막이 올랐다. 최강 골프팀을 가려낼 본부별 대항전은 물론 개인의 골프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롱 드라이브 챔피언십과 새롭게 진행되는 니어 핀 챌린지 그리고 다채롭고 특별한 이벤트까지, 삼정인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서 치러지고 있는 챔피언십 현장으로 들어가 본다.



제 2회
삼정KPMG 챔피언십
개막식



기다리고 기다리던, 삼정인들의 대축제 '제2회 삼정KPMG 챔피언십'의 막이 올랐다. 본부별 골프 대항전인 챔피언십은 32개 본부가 4개 팀씩 8개 조로 나뉘어 조별 예선전을 치른 후에 조 1, 2위 16개 팀이 토너먼트로 우승을 가린다. 경기는 본부별 단체적으로 포볼매치 플레이로 진행된다. 2명이 한 팀을 이뤄 각자의 공으로 플레이한 뒤 매 홀 각 팀에서 더 좋은 스코어를 기록한 골퍼의 기록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이번에는 팀별로 점수 차등을 두기 위해, 예선전 우승 본부는 승점 3점, 무승부로 경기를 치른 본부들은 1점씩 나눠 가진다. 총 우승 상금은 2,400만 원으로 우승팀 6백만 원, 준우승팀 3백만 원, 3위팀 180만 원, 4위팀 120만 원, 5~16위팀은 팀당 60만 원 상품권이 수여된다. 이외에 17~32팀은 각 30만 원 상품권을 전한다. 아울러, 경기 중 휴일원과 이글을 기록한 선수들에게 특별한 선물도 증정된다.

온라인 생중계로 열린 조 추첨식 선수 소개부터 응원 메시지 담은 럭키 드로우까지!

지난 5월 17일에는 온라인 생중계로 조 추첨 행사가 열렸다. 조 추첨 현장에는 김교태 회장, 대회추진위원장인 박정수 전무, 지난해 챔피언십 우승본부 선수들, 올해 출전 선수들 등이 참가했으며, 촬영은 S.Manager(SCG)와 이준성 S.Senior(Tax6)의 사회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행사 첫 순서로 김교태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김 회장은 “아름다운 계절, 봄에 '제2회 챔피언십'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 올해는 People First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될 계획이며, 이 대회도 그 계획 중 하나이다. 이번 기회에 업무 공간을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본부원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초대 우승을 이룬 Tax5·6본부의 본부장 강길원 부대표가 1년간 고이 보관해 둔 우승 트로피를 들고 등장했다. 강 부대표는 3년 연속 대회 우승 시 영구 소장할 수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연속 우승의 기대를 내비쳤다. 이윽고 A~H 포트별로 조 추첨을 하여 대진표가 완성됐다. 예선전 경기 코스는 올해는 추첨을 통해 이뤄졌다. 박정수 대회추진위원장의 손에서 1차전은 참밸리 CC, 2차전 360도 CC, 3차전 포천힐스 CC로 예선 경기 코스가 결정됐다.

조 추첨 행사 끝으로 삼정인들의 다채로운 응원 메시지를 담은 명함으로 럭키 드로우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10명이 삼정인들에게 호텔 뷔페 식사권, 백화점 상품권, 커피 머신, 캠핑 의자, 스마트 워치, 로봇 청소기 등의 경품을 전했다.





볼꽃 튀는 골프 대전의 시작! 16강행 티켓을 잡은 본부는?

지난 5월 23일에는 '제2회 챔피언십'의 조별 예선 1차전 대회가 열렸다. 예선 현장은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됐다. 예선 경기 시작에 앞서, 챔피언십 대회 개막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개막전은 김동준 Consultant(SCG)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반적인 대회 진행 순서와 경기 방식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김교태 회장의 개막 선언과 시타가 진행됐다. 시타에는 김교태 회장을 비롯하여 조 추첨식에서 A조 1번으로 선정된 B&F1 본부의 이지현 Director가 힘찬 시타를 선보이며, 대회 개막을 알렸다. 개막전 끝 행사로 2차 럭키 드로우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도 10명의 삼정인들이 선정되어, 푸짐한 상품을 전달받았다.

오후 5시 30분부터는 대진표에 따라 긴장되는 예선 첫 경기가 시작

·장소: 오렌지9스크린센터
(강남구 언주로107길 26)

결승 및 3·4위전

6월 28일(수) 17:30

4강

6월 22일(목) 17:30

8강

6월 19일(월) 17:30

16강

6월 13일(화) 1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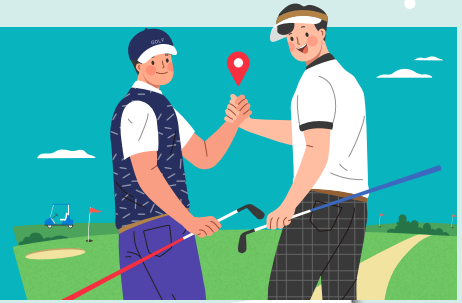
됐다. 첫 타구에는 긴장된 몸짓도 보였지만, 이내 몸이 풀이며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무엇보다 예선 경기를 각 본부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해설 중계를 맡아 실감 나고, 흥미진진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다. 유튜브로 경기를 지켜보는 삼정인들은 소속된 본부가 우승할 수 있도록 “굿 샷!”, “긴장하지 말고 파이팅!”, “나이스 버디” 등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응원 메시지도 남기는 등 경기를 즐겼다.

열정 넘친 1차전에 이어 5월 30일 2차전, 6월 8일 3차전 경기가 마무리됐다. 치열한 접전 끝에 16강행 티켓을 얻은 본부도 확정됐다. ▲A조- Tax5-6, DA1 ▲B조- B&F2, Tax1 ▲C조- DA5, ICE1 ▲D조- ICE3, Digital Tech ▲E조- IM1, ICE2 ▲F조- IM4, DA4 ▲G조- Tax2, Central Services ▲H조- CM1, DA3이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특히 B조의 Tax1본부는 MCS2본부와 동점을 기록했지만, 직급 점수가 산점으로 Tax1본부가, G조는 Central Services가 MCS1본부와 동점에도, 최소홀을 기록해 16강 진출 티켓을 얻었다. 16강부터는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한편, 챔피언십 속 스페셜 이벤트로 ‘롱 드라이브 챔피언십’, ‘니어 핀 챌린지’가 지난 5월 2일부터 3일간 예선 경기를 치렀다. 이에 각 스페셜 게임에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삼정인들은 6월 22일 니어 핀 챌린지, 6월 28일 롱 드라이브 챔피언십 결승전을 앞두고 맹연습 중이다. 아울러, 롱 드라이브 챔피언십 결승과 함께 6월 28일에는 대망의 챔피언십 결승전이 개최된다. 제2회 챔피언십 우승컵을 들어 올릴 본부는 어디일지, 또 개인 역량을 마음껏 뽐내 스페셜 경기에서 1위를 할 삼정인은 누구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진다. 이제부터 더 뜨거워질 경기를 함께 응원해 보자.



삼정인들이 보내온 포토존 이벤트 “퍼팅 하러 가는 길”



김재안 Analyst(DA5)와 동료들이 함께!



송윤휘 Analyst(DA7)가 골프공을 들고 해맑게 웃고 있다



최선우 Consultant(MCS2)의 퍼팅!



송규원 Manager(CM2)의 여유로운 퍼팅!



이준석 Analyst(DA5)가 골프채를 들고 웃음 짓고 있다



서정은 Associate(B&F)의 브이(V)!



이경민 S.Manager(DA7)와 동료들이 해맑은 모습으로!



정민주 Manager(CM2)가 동료와 함께!



황진서 Associate(IGH)의 해맑은 퍼팅 모습

채용특집 I

People First!

삼정KPMG의 모든 것

본격적으로 2023 신입 회계사 공개 채용이 시작됨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삼정KPMG 입사를 희망하는 미래 삼정인을 위해 삼정KPMG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그럼 지금부터 법인의 어떤 지원을 통해 삼정KPMG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전문가로의 성장!



Industry Specialization! 업계 유일! 산업별 전문 조직을 통한 전문가 육성

삼정KPMG는 산업별로 전문화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소비재, 정보통신, 제조, 에너지, 자동차, 공공분야 등의 전문 조직을 구성하여 고품질의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에 입사 지원 시 본인의 관심과 적성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Function과 산업군을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직무 및 스킬 교육을 통해 전문가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Everyone a Leader! 'Junior 집중 육성 프로그램' & '해외 연수'

법인 입사와 동시에 Junior 집중 육성 프로그램인 'Global Elite Program(GEP)'을 통해 Professional Auditor로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Learning Track을 3년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3년간의 교육 과정 수료 후 선발된 우수자에게는 법인에서 주관하는 우수자 시상식 및 해외 연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답니다! GEP 성적 우수자 해외 연수 과정 외에도 S.Manager 승진자 전원에게 2주간의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셀프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성장 UP!

우리 법인은 온라인 플랫폼인 GLMS(Global 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해 다양한 형태의 리소스를 통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자기 계발을 지원하고 있어요. 또한, 개인별 니즈에 따라 리더십, 비즈니스, 영어 관련 2,000여 개의 다양한 로컬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셀프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웹과 모바일에서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어요.



다양한 경력 개발의 기회! 본부 이동 제도 & 해외 파견 & IT Audit Exchange 프로그램

다양한 경력 개발을 위해 본부 간 이동이 가능한 'New Challenge Program(NCP)'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어요. 아울러 해외 멤버 펌 및 Korea Desk 파견 등을 통해 해외 업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성원들의 파견 준비를 위한 해외 파견 대비반 운영 등 Global Opportunity 정책에 따라 해외 근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최근 감사 환경에서 요구되는 IT 감사 능력 강화를 위해 IT Specialist들과 함께 IT Audit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IT Audit Exchange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성 리더 양성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삼정KPMG는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요. 먼저, 매년 진행 중인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여성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교육, 강연, 멘토링 과정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아울러 법인 내 여성 리더 모임인 'KNOW' (KPMG Network Of Women) 활동도 활발히 운영 중이에요. 사내 교육 외에도 외부 여성 임원 단체인 윈(WIN, Womens In Innovation)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여성 리더들과의 만남을 통해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하고 있어요. 또한, 세계여성이사협회(Women Corporate Directors, WCD) 후원으로 여성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답니다.



소통과 즐거움, 행복한 일터!

다양성을 반영한 일하는 방식 업계 최초 '재량근로제' 도입 & 시행

업계 최초로 법인의 공동근로자 대표들과 유연근로제 도입 합의를 이끌어, 시행하고 있어요. 이에 유연한 출퇴근 시간을 기반으로 구성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으며, 충분한 휴식과 금전 보상을 제공하고 있어요. 또한 최대 2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아빠들의 육아휴직까지 지원하고 있답니다.



편한 분위기 속 업무를! 쾌적하고 편안한 '스마트 오피스'

일하는 업무 공간의 혁신을 위해 2019년 GFC 8층을, 2020년에는 GFC 28층을 스마트 오피스로 전환했어요. 이후 구성원들을 위한 최고의 업무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지난 2022년에는 GFC 내 삼정KPMG 업무 공간 전체를 스마트 오피스로 구축했어요! 선호에 따라 층과 좌석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답니다.



복지카드 및 단체 보험 혜택

구성원들의 라이프를 위해 자기계발 및 문화생활을 위해 연간 180만 원의 복지 후생비를 지원하는 BLSP(Beautiful Life in Samjong Program)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입사 3개월 이후부터 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아울러 각종 재해사고 및 질병에 대한 보험 혜택과 스트레스, 우울감, 회사 생활 적응 문제, 성격 및 가족 문제 등 구성원들의 마음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상담사의 심리 건강 케어 프로그램 CIM(心) Care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어요.



사회공헌, 재능기부 등 사랑나눔 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들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 기부를 통해 주기적으로 나눔 정신을 실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법인은 업계 최초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자인 '파란행복'을 설립해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Fun! 소통과 즐거움이 가득!

소통과 재미, 즐거움이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요. 먼저, 2022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2회 차에 접어든 삼정KPMG 챔피언십은 골프를 모르는 삼정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골프대화로 구성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고 있어요! 또한, 여가 활동을 위한 사내 동호회도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이외에도 타 본부원들과 식사 모임을 지원하는 '삼삼오오', 동료들 간 취미 활동을 지원하는 'Talk Play Love',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두근두근 커플매칭'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일가양득! 가족친화 프로그램

일과 가정에서의 행복을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먼저,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축하금'은 물론, '결혼 5주년 기념일 선물', '초등학교 자녀 입학 축하 선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보육비'도 지원하고 있어요. 또한, 특별한 기념일, 부모님을 찾아볼 때 감사 선물 비용을 지원하는 '부모님을 뵙니다', 특별한 날 법인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리무진 서비스'가 있어요.



채용특집 Ⅱ

1년 차 삼성인의 성장 스토리

미래의 삼성인을 위해 1년 차 삼성인들이 모였다. 가장 궁금해할 만한 점들을 본인들의 경험담으로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을 가진 것. 1년 동안 삼성KPMG에서 느낀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보자.



*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다양한 채용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강동주 Associate (Tax2)

배유경 Analyst (Deal Advisory6)

김시원 Associate (ICE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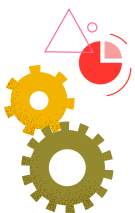
좋은 데는 이유가 있지!

**“좋은 사람들,
높은 성장률, 함께 성장!”**

김시원: 지난해 9월에 신입 회계사로 입사해, 1년 차에 접어들었네요. 수험생 시절에 저는 KPMG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인재 존중을 실현하는 법인이기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삼정KPMG에 꼭 입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실현했다는 게 행복해요!

강동주: 저는 입사 전 법인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좋은 선배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배우는 점도 많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에 반했죠. 그래서 이분들과 소속되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삼정인이 되리라 결심했죠. 무엇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법인이기에 저 역시도 입사 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 강남에 위치해 있기에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많아요. 퇴근 후 약속 잡기도 좋답니다. 하하.

배유경: 저는 진로를 이미 딜(Deal) 분야로 마음을 먹은 상태라, 업계 최고인 삼정 KPMG에 입사하고 싶었어요. 업계에서의 삼정KPMG 딜의 위상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입사하고 나니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신입의 목소리까지 귀 기울여주는 모습을 보고, 와 삼정인하길 잘했다 생각도 들었어요.



**삼정인이 된 후 느낀 점?
People First! 배려와 존중으로
성장 지원하는 곳!**

김시원: 우리 법인은 People First를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해요. 지난 2월 졸업 당시 바쁜 기간임에도 학위수여식 일자까지 법인에서 조사해 업무 일정을 조정하고, 졸업식에 참석하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졸업 선물까지 챙겨 주시는 것을 보고 구성원 개인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음을 느꼈죠! 시즌이 끝난 후에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본부 워크숍으로 소통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강동주: 맞아요, 인재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법인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예요. 덕분에 전문성을 키우며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아직 1년 차로서 경험하지 못한 업무들이 많은데요, 다양한 업무 경험과 함께 경력을 쌓으며 성장하고 싶다는 각오도 새롭게 다져봅니다.

배유경: 다양한 복지도 빼놓을 수 없죠! 한 달에 한 번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헬스키퍼, 영양 잡힌 식단으로 저렴하게 식사할 수 있는 구내식당 정원, 그리고 임직원들과 단합할 수 있는 골프 대회 등 다양한 복지들이 마련되어 소소하게 삶의 질을 높여줘서 하루하루 즐겁게 일한다는 기분이 들어요! 무엇보다 필요한 교육을 스스로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셀프 교육도 성장에 밑거름이 되어줘요.

**To. 미래 후배들에게
“건강한 성장을 향해
함께 나아가요!”**

김시원: 저를 포함한 동기 회계사들 모두가 다시 첫 시즌으로 돌아간다면 더 잘 내고 싶다는 마음인데, 이 마음을 후배 삼정인들이 들어오면 그대로 잘 전해주고자 합니다. 많은 부담과 걱정 없이 입사를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이니 컨디션 조절을 해가며 건강한 성장을 이뤄 나가기를 바랄게요.

강동주: 좋은 사람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삼정KPMG에는 정도 많고 실력도 갖춘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요! 아무리 업무가 힘들고 시즌이 고되더라도 좋은 사람들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곳이 삼정 KPMG라고 생각해요. 우리 법인에서 함께 좋은 사람들과 일하며 성장해 가요~!

배유경: 여러분들의 앞길을 응원합니다! 열심히 우리 법인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즐겁게 법인 생활하면 좋겠네요. 저 역시도 빨리 배우고 성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어요! 우리 법인으로 오셔서, 함께 성장을 이뤄가요! 파이팅!



데구르르 행복을 굴리는 삼정 볼링 동호회 '데구르르'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서 삼정KPMG의 동호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볼링과 스카이다이빙 동호회가 신설됐다. 이번 호에서는 '삼정 데구르르'란 이름으로 신설된 볼링 동호회를 소개한다.

데구르르 모두 화합으로!

점점 뜨거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이제 막 딱딱딱하게 신설된 동호회가 있다. 삼정 데구르르라는 귀여운 이름으로 탄생한 볼링 동호회인데, 삼정 데구르르는 법인 내 다양한 본부, 직급의 삼정인들이 모여 공을 데구르르 굴리며 화합하고 교류하는 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개설됐다.

법인의 최초 볼링 동호회로, 인기가 뜨겁다. 개설 일주일 만에 30명이 넘는 인원이 동호회에 가입했다. 특히, 동호회원들이 Senior 이하 직급이 대부분이라, 젊고 활기가 넘친다. 볼링 동호회는 격주로 진행되는데, 목요일 혹은 금요일 저녁 회사 근처 볼링장에서 활동 중이다. 무엇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격주 월요일 투표를 통해 모임 날짜를 선정한 후 볼링을 즐기고 희망자에 한해서는 저녁 식사도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Deal Advisory5본부의 김양태 상무의 따뜻한 지원 아래, 정다현 Analyst가 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Deal Advisory6본부의 이소정 Analyst, Deal Advisory5본부 정지훈 Analyst가 함께 동호회를 꾸려 가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데구르르 행복을 굴리는 삼정KPMG 볼링 동호회를 만나본다.

볼링 동호회 문의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
타 본부 사람들과 어우러지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데구르르에 놀러 오세요.
동호회 운영진에게 언제든 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DA5 정다현 Analyst
(dahhyunchung@kr.kpmg.com)
DA6 이소정 Analyst
(slee245@kr.kpmg.com)
DA5 정지훈 Analyst
(jihoonchung@kr.kpmg.com)



스트라이크를 꿈꾸며
힘차게 공을 굴러본다



볼링 후 함께 저녁
모임을 즐기며 친목 UP!

법인 생활의 스트라이크를 위해!

정다현: 볼링 동호회를 만들어 볼까? 고민한 건, 볼링으로 일상의 활력을 얻으면서였어요. 퇴근 후 동기들과 종종 볼링을 치며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리고, 일상의 새 힘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좋은 사람들과 볼링을 하면서 '법인 생활의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개설하게 됐어요. 지난 5월 드디어 첫 모임을 진행했고, 많은 회원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물론 처음이라 살짝 어색함도 있었지만, 볼링 핀이 쓰러질 때마다 그 어색함이 점점 깨졌고 서로 응원하며 더 가까워질 수 있던 시간이었어요!

이소정: 입사 후 볼링을 치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선뜻 볼링 치러 가자고 주변에 말을 꺼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볼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볼링을 즐길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딱! 볼링 동호회가 신설된 거예요. 부담 없이 자유롭게 볼링을 즐길 수 있겠다는 마음에 단박에 가입했습니다.

정지훈: 저는 대학교 때 볼링 동아리에 활동했거든요. 하지만 졸업 후에는 마땅치 않았는데, 사내에 볼링 동호회가 생긴다니 너무 반가운 거예요! 고민도 없이 바로 가입했어요. 하하.

볼링으로 갓생 시작!

이소정: 볼링 동호회를 통해 운동과 근력 강화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처음 볼링을 쳤을 때, 팔 힘이 약한데 공은 무거워서 공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더라고요. 원래는 상체 근력 운동에 관심이 없었는데, 볼링을 친 후 그 필요성을 느끼고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덕분에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러워요!

정다현: 볼링 덕분에 운동을 시작하셨다니, 대단해요. 그야말로 갓생*을 살고 계시네요. 하하. 저는 일단 데구르르 활동을 통해 새롭게 취미가 생긴 것 같아 기뻐요. '퇴근 후 무얼 하면 좋을까?' 두리번거리던 삶을 살다가, 동호회 활동으로 볼링도 치며 다양한 삼정인들과 교류하고 조금은 삶이 더 윤택해졌어요. 하하.

정지훈: 볼링은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참 매력적인 스포츠예요. 잘하면 함께 기뻐해 주고, 못해도 괜찮다고 격려하며 함께 웃고 즐길 수 있어요. 저 역시도 동료들과 볼링을 통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즐거운 운동을 이제는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동호회 활동 덕분에 정기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볼링을 치면서 실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체력적, 심적 부담 ZERO!
볼링 한 게임 어때요?**

이소정: 볼링은 오로지 핀을 넘어뜨리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하는 매력이 있어

요. 그래서 그 집중하는 순간만큼은 일상의 스트레스와 걱정은 잠시 내려 두고 온전히 몰입할 수 있어 좋아요. 많은 삼정인분들도 이 몰입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으면 좋겠어요. 행여나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볼링 게임 한판에 매우 가까워진답니다! 언제든 참여해 주세요!

정다현: 볼링은 성별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또 운동신경이 부족한 사람도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데구르르와 함께 볼링 핀 날리며 스트레스도 해소해 보세요.

정지훈: 맞아요! 데구르르는 삼정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실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동호회랍니다. 정기적으로 볼링을 칠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강사님을 모셔 볼링 강습도 진행할 예정이라 볼링 실력도 기르실 수 있어요. 또한 원하실 때 자유롭게 참석하실 수도 있으니, 많이 신청해 주세요!



첫 동호회 모임 후 단체 사진 찰칵!

*갓생: '갓(God)과 '인생(生)'을 합친 합성어로,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삶 또는 일상에서 소소한 성취감을 얻는 일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

나는 삼정 밸류 큐레이터!

삼정인이 추천한 KPMG Value를 담은 작품은?

삼정KPMG는 Integrity, Excellence, Courage, Together, For Better 5가지의 Value를 행동과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업무와 생활 속에 적용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삼정인들이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다섯가지의 Value를 다양한 작품으로 큐레이팅 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삼정인들이 추천한 삼정인과 나누고 싶은 드라마, 영화, 도서에서 발견한 우리의 Value에 대해 들어본다.

Integrity

"내가 겁이 많아서
겸사가 된 사람이야!"
- 영화 '부당거래'



김현규 Associate (IM3)

제가 선정한 대사는 비록 영화 속에서는 위세를 떠는 분위기에서 나온 대사이지만, 곰씹어 생각해 보면 전문직으로서 정직, 성실성을 유지하려면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보수적인 자세로 업무를 해야함을 되새길 수 있는 대사였어요.

"In past Spotlight's had
success in large part because
they pick their own projects."
("과거에 특종팀이 성공해 온 것은
직접 주제를 골랐기 때문이에요.")
- 영화 'Spot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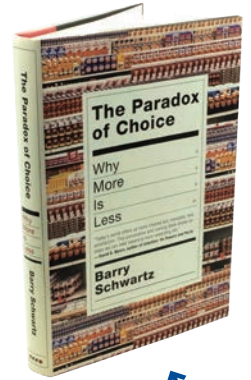


최제형 Associate (IM2)

저는 이 영화에서 이 대사가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직업윤리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선 함구하고, 성공이 될 주제들에 대해서만 기사화하는 것은 분명 진정한 언론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이 영화를 통해 우리의 Value 중 Integrity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전 정보이용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이 되었든 정직하게 알려줄 거예요!

Excellence

"최선의 선택은 결코 불확실하지 않다."
- 도서 '인간본성의역설'
(The Paradox of Choice: Why More Is Less)



이창희 S.Consultant (MCS2)

이 구절은 우리가 선택할 때 완벽한 결정이나 최적의 선택지를 찾으려고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오히려 선택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완벽한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선택의 과부하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승부에서 패하고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사람은 이미 프로가 아니다. 그것은 인품과 무관하다.
승부사에게 패배의 아픔은 항상 생생한 날 것이어야 한다. 늘
승자가 될 수는 없지만 패자의 역할에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
- 도서 '이창희의부득탐승'

신상문 S.Analyst (Deal Advisory5)

이창희 9단 에세이 '부득탐승'을 읽어 보고 우리 법인의 가치 Excellence를 느꼈습니다. 승부사에게 패배는 생생한 날 것이어야 하며, 패자의 역할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각 영화 포스터 및 출판사

Courage

"세상을 바라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김민수 Associate (ICE1)

영화는 상상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주인공이 여행을 통해 본인 스스로의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주인공과 비슷한 삶을 살아온지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작품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제 스스로 발전을 위해 두렵지만 계속해서 도전하고, 여러 사람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을 모토로 삼게 되었습니다.



Together

"세월과 운명 앞에 쇠약해졌지만 의지만큼은 강대하도다. 싸우고, 찾고, 발견하고, 굴복하지 않겠노라 (to strive, to seek, to find, and not to yield)."

- 영화 '007 Skyfall'

황태원 Senior (Tax4)

영화 도입부에 나오는 아델의 노래(Skyfall) 가사 (Let the sky fall, when it crumbles, we will stand tall and face it all together.)도 감동적이지만, 영화에서 M01 청문회에서 옌는 테니스의 시<울리시스>의 한 구절 역시 감동적입니다.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위에 대사를 떠올리며 어떤 역경에도 동료와 함께 당당히 맞서고자 하는 마음가짐(동지애, 영어로 camaraderie라고 하죠)을 굳게 다져봅니다.



"직접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지만, 자신이 진실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거짓말이다."

- 도서 '12가지 인생의 법칙'

변차누 Associate (B&F1)

제가 생각하는 Courage란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가기 힘든 길이지만 그에 수반하는 공수까지 책임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나온 이 글귀가 우리의 Courage value를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For Better

"대사에 완벽하려 할 때 우리는 항상 어딘가는 부족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기만의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을 가진 채로도 온전히 해낼 수 있다고 용기를 낼 때 커다란 가능성과 마주할 수 있다. 완벽으로 가는 과정에는 반복이 필요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팽개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과물을 쏟아 내가는 성실의 시간 말이다."

- 도서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

유재선 S.Consultant (Digital Tech)

20년 경력의 잡지 에디터인 작가의 업무적인 태도와 동료들과의 협력 및 나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책임입니다!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드는 건 단순한 일이다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드는 건 복잡한 일이다”

Simple is beautiful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긴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을 선호하게 마련이다. 거기에 즐거움까지 겸비한다면 금상첨화다. 특히 '단순함 (simplicity)'이란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다. 예컨대, 남녀가 연애할 때도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단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의 위력을 따라갈 수 없다.

단순함이 아름답다

처음에는 단순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밋밋하다는 생각 때문에 단순함의 가치를 모르던 사람들도 오랜 세월을

살아오다 보면 누구나 느끼게 되는 일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만드는 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 단순함이란 고도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과한 마지막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단순함이란 높은 경지에 오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은 포기, 즉 버리는 것이다. 피카소가 주력했던 일도 아이디어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것, 즉 빼고 또 빼서 본질만 남기는 것이었다. 재즈연주자로 유명한 찰스 밉거스의 견해도 비슷하다. “누구나 독특한 일을 할 수 있으나 그건 쉬운 일이다. 어려운

것은 바흐처럼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극도로 단순화시키는 것, 그것이 창조성이다.” 미켈란젤로가 남긴 “조각이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다”라는 명언도 같은 맥락이다. <생각의 탄생>에서 리처드 파인먼은 “현상은 복잡하다. 법칙은 단순하다. 버릴 게 무엇인지 알아내라”고 잘라 말했다. 결국 단순함이란 쓸데없는 이것저것 다 떼고 난 후 만나게 되는 본질(本質)이란 강력한 세계다.

모든 역사를 통해 단순함은 복잡함을 이겨왔다. 마네의 그림이 그랬고, 조립식 이케아(IKEA) 가구가 그랬고, 생명이 긴 유행가 가사가 그랬다. 디자인 업계의 신조류인 미니멀리즘(Minimalism) 등도 같은 맥락이다. 월터 아이작슨에 따르면 스티브 잡스는 선(禪Zen)에 푹 빠졌으며 그 결과 극도로 단순한 디자인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애플이 첫 브로슈어 표지에 다빈치의 명언, “단순함은 궁극의 세련됨이다(Simplicity is the ultimate sophistication)”를 내세웠던 이유다.

단순함으로 승부하라!

비즈니스 100년사가 증명한 단 하나의 성공 전략은 바로 단순화 전략이다. 구글의 창업정신 및 도착시간의 철저한 준수로 유명한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SWA)의 6가지 성공법칙 중에도 단순함의 진수를



찾아볼 수 있다(Keep it simple). 디자인을 최대한 견어내어 상품의 실존적 가치를 드러낸 일본의 무인양품(MUJI) 성공의 주역, 하라 켄야(原研哉) 교수는 ‘공(空)’의 철학을 주장하며, 자신의 외모는 물론이고 각종 제품에서도 말끔히 군더더기를 제거하는 걸로 대히트를 쳤다.

“간결함은 지혜의 정수다(Brevity is the soul of wit).” 이 말은 셰익스피어가 <햄릿> 2막에서 쓴 말이다. 특히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상대가 어떤 말을 들었는지가 중요하다. 간결함이란 짧게 말하지만 핵심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하는 기술이다. 이런 경우 요점과 핵심을 말할

수 있는 Tip이 있다. BRIEF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B는 Background 즉 서론이다
- ② R은 Reason, 근거 또는 타당성을 뜻한다
- ③ I는 Information, 핵심 정보를 말한다
- ④ E는 Ending, 결론을 의미한다
- ⑤ F는 Follow-up, 추가내용이나 질문이다

세상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져 가고만 있다. 그러나 첨단 디지털화가 진전되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라고 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갈 것이다. 아! 추사 김정희가 남긴 글귀 중에서 노자의 ‘대교약졸(大巧若拙: 큰 솜씨는 마치 서툰 것처럼 보인다)’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던가.

▶▶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교수는 매우 다양한 경력을 거친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이며, 스타 강사로도 유명하다. 또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저자이자 교보 광화문출판 선정(2022년) 작가이다. 현재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볼과 ‘두줄로 풀어낸 국내 최초의 독창적인 초미니 칼럼 (부제: Think Audition)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과 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생각 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지식과 사색의 아포리즘 결정체다.



내가 참은 감정은 어디로 갔을까?

모든 감정을 표현하며 지낼 수는 없으니,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감정은 참는 경우가 많다. 그 순간을 넘긴 감정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이번 호에서는 감정을 참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글.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저게 저절로 붙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 있어서
불게 익히는 것일 게다
- 장석주, <대추 한 알>



성숙한 사람은 감정 조절을 잘한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감정 기복이 크지 않아 기분이 많이 좋을 때도 없고, 많이 나쁠 때도 없는 사람은 감정 조절을 잘하는 것일까? 기분 상해도 자기 감정을 잘 숨기고 상대방을 맞춰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할까? 순간 욕하는 감정이 올라와도 심호흡 하며 이성적으로 자기 감정을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일까? 배가 고파 예민한 상황에서 신경질을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을 억제하고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감정 조절이라고 한다. 감정 조절의 첫 단추는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다. 즉, 내가 화났다는 사실을 인식은 하지만 화를 참는 것이 억제다.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감정 조절의 관건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한 번 감정을 다 참아 보면 어떨까?

'자아고갈(Ego depletion)'은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가 제안한 유명한 심리학적 개념이다.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자아의 힘은 그 양이 한정적이어서 감정을 참는 것에 힘을 과하게 사용하면 다른 곳에서는 자아의 힘을 쓸 수 없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보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M 씨는 하루 종일 몸과 마음이 긴장된 상태다. 원래 자신의 모습과는 다르게 썩썩한 행동을 주로 보이며 웬만한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어도 웃어넘기고 밝은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며 일을 한다. 전문인으로서 철저한 자기 관리를 위해 쉬고 싶은 것을 꼭 참고 주 3회 운동과 취침 전 어학 공부도 꾸준히 챙기며 영양제를 털어 넣는다. 일과 사람에 치여 녹초가 된 어느

날, 모든 힘이 바닥 난 상태로 집에 도착한 M 씨는 양말을 벗을 힘조차 없다. 어머니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운동, 공부, 영양제의 하루 루틴을 모두 내팽개친 채 밤늦게 매운 족발을 시켜 먹는다. 자제력을 모두 다 써 버린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버전의 심리학 실험들로 자아고갈 현상을 증명했다. 사람들에게 분노나 짜증을 유발시킨 후 그 감정을 억누르라고 한 후 악력을 측정했더니 악력이 약해졌을 뿐 아니라 술을 과음하게 되었다. 감정을 억제하느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린 나머지 신체적 힘과 행동 조절력을 잃은 것이다.

억지로 감정을 참은 대가를 어디선가 치르기 마련이다. 그 대가는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 어디선가 줄줄 새고 있을지도 모른다. 운전하다 별일 아닌 것에 욕하며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전혀 구매할 생각이 없었던 취미 용품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구매하거나, 나도 모르게 자제력을 잃고 창피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참은 감정은 증발하지 않고 나의 다른 힘을 고갈시켜 버린다. 전반적인 자제력과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감정 억제에 힘을 덜 쏟을 연습'과 '감정을 억제하느라 고갈된 힘을 충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감정 억제에 힘을 덜 쏟기 위해서는, 스스로 감정을 잘 참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는 것이 좋다. 감정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어서 힘을 주면 줄수록 더 새어나올 뿐이다. 감정이 상하면 상하는 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스스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당황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상황

이라면 '앗, 자꾸 얼굴이 화끈거려서 큰일이네.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야지'라는 생각보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니 내가 지금 많이 당황했나 보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감정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는 표현하는 것이 억지로 참는 것보 다 더 효과적이다.

감정을 억제하며 다 써버린 힘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지인들과의 대화 혹은 책, 영화 등의 간접 체험을 통해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계기를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종로에서 뽕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것은 한강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가 아닐 뿐더러 스스로 소진되는 면이 크다. 종로에서 뽕을 맞으면 종로에서 추스를 수 있도록 평소에 감정을 인식하는 훈련과 충전을 해 두자. 그렇게 우리는 더 깊이 성숙해진다.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기업에서 상담, 위기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성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SAMJONG NEWS

‘제10회 Advanced Auditor Program(AAP)’ 개최



1. AAP 세미나에서 축사 중인 김교태 회장
2. ACI 리더 김유경 전무가 연사로 나서 감사·감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지난 5월 10일 제10회 Advanced Auditor Program (AAP) 세미나를 개최했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Audit Committee Institute)는 2015년부터 업계 최초로 감사·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정립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최고감사인과정(AAP)’을 이어오고 있다. 감사 및 감사위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제도적 사항뿐만 아니라 실무 지침과 사례를 통해 교육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 교육은 2023년 신규 선임된 감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31명의 감사(위원)와 함께했다. ACI 리더인 김유경 전무를 비롯해, 심정훈 상무, 이세권 변호사 등이 연사로 참여하여, 기업 지배구조 및 감사위원회 제도와 운영, 활동 방안,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첫 번째 세션은 삼정KPMG ACI 리더 김유경 전무가 발표자로 나서 기업 거버넌스를 주제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감사·감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은 삼정

KPMG 이세권 변호사가 다양한 판례를 통해 주요 법규에서의 감사·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을 살펴보고 감사위원회 제도를 소개했다.

세 번째 세션은 삼정KPMG ACI 부리더 심정훈 상무가 감사·감사위원회가 연간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김유경 전무가 재무보고 및 외부감사, 내부감사, 리스크 감독에서의 감사위원회 역할을 포함한 감사위원회 활동 방안을 제시했다.

삼정KPMG 감사부문 한은섭 대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되는 등 강화된 제도에 따라 감사 및 감사위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최고감사인과정(AAP)’을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임 감사 및 감사위원의 역할 수행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기업서식공시 작성 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감사·감사위원의 교육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Contact: ACI 리더 김유경 전무 youkyoungkim@kr.kpmg.com

‘2023 Partners’ Workshop’ 개최



삼정KPMG는 지난 5월 24~26일, 2박 3일간 ‘2023 Partners’ Workshop’을 개최했다. 제주도에서 진행된 파트너 워크숍은 파트너들 간 결속력을 다지고, 법인의 향후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삼정KPMG 파트너들은 지난 FY2022 법인의 성과를 되짚고,

FY2023 법인의 전략을 공유했다. 나아가 Vision 2025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도 법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특별히 한양대학교 정재찬 교수가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알.쓸.산.지.]

배터리 생태계 경쟁 역학구도로 미래 배터리 산업 살펴봐

경제, 산업별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지식을 탐험해 보는 ‘알쓸산지’(알면 쓸데 있는 산업 지식)가 지난 5월 18일, 전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팀즈 라이브(Teams Live)로 열렸다. 임직원 594명이 참석한 이번 강연은 ‘배터리 생태계 경쟁 역학 구도로 보는 미래 배터리 산업’을 주제로 열렸으며, 경제연구원 김나래 수석 연구원, 정미주 선임 연구원이 강연자로 나섰다. 김나래 연구원은 “배터리 산업은 전동화 및 무선화 트렌드에 부합하고 탄소중립 달성 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전기차 및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전망을 공유했다. 이어 배터리 산업의 역학 구도를 밸류체인, 원자재 확보, 저련, 핵심 소재 제조 등의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을 공유했다.

삼정 KPMG

배터리 생태계 경쟁 역학 구도로 보는 미래 배터리 산업

Internal Use Only

May 2023
삼정KPMG 경제연구팀

1. 용량부터 저용량까지 배터리의 산업 분류법

기술패권 시대, 왜 배터리 산업에 주목하는가

배터리 산업은 미래 산업 발전 방향성인 전동화·무선화 트렌드에 부합하고 탄소중립 달성 수단으로 각광받음과 동시에 전방산업인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전 세계가 배터리 산업에 주목하는 이유

1. 글로벌 저용량부터 배터리의 산업 분류법

전 세계 전기차 및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전망

전 세계 전기차 수요는 2019년 232만 대에서 연평균 33%씩 성장하여 2030년에 약 5,568만 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전기차용 배터리의 경우 2019년 118GWh 수준에서 연평균 37%씩 증가해 2030년 3,647GWh에 이르게 될 것임

연도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전 세계 전기차 수요 (만 대)	118	145	201	276	371	491	648	854	1,128	1,502	1,979	2,627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GWh)	118	145	201	276	371	491	648	854	1,128	1,502	1,979	2,627
전 세계 배터리 수요 (GWh)	118	145	201	276	371	491	648	854	1,128	1,502	1,979	2,627

Source: IHS Mark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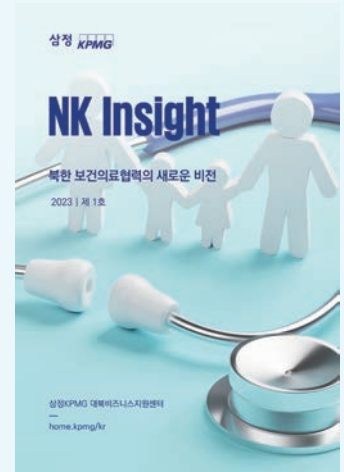
본문에서 인용한 자료는 「2023년 5월 18일 KPMG 50801 KAF (KAGAR) 1번」

기타에 한해 (표지) → 저 시점, 금요일, 2023년 5월 18일, 50801 KAF (KAGAR) 1번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북한 보건의료협력의 새로운 비전' 발간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가 NK Insight 제1호 '북한 보건의료협력의 새로운 비전' 보고서를 발간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6년 북한에서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 수는 총 18만 명이며, 인구 10만 명당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677.1명으로 우리나라 266.7명의 2.5배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북 보건의료 지원은 일회성이거나 단기적으로 진행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북 보건의료사업은 북한 보건의료체계 재건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파트너로의 역할 전환이 요구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취약한 보건의료 환경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북한 보건의료산업 재건 파트너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담고 있다. 한편,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는 2018년 4월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 단행본을 출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준비가 필요한 대북 비즈니스 분야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고서는 삼정KPMG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ntact: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김광석 센터장/부대표 (kwangseokkim@kr.kpmg.com)

[사랑나눔]

미혼모 가정 위해 '신생아 키트' 제작해



삼정KPMG는 5월 29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가정을 위해 배냇저고리, 초점책 등 신생아 키트를 제작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활동은 임직원 및 가족, 지인 100명이 참가했으며, 배냇저고리와 초점책 키트를 택배로 수령해 제작한 뒤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 가정에 전달했다.

Deal Advisory3본부 김참 S.Manager는 “아직 100일이 채 되지 않은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혼자 양육할 미혼모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라며 “실제로 딸이 배냇저고리와 초점책 모두 유용하게 사용했기에, 받는 아이가 부디 잘 사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완성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위한 '제과제빵 봉사' 진행

삼정KPMG가 5월 20일 가정의 달을 맞아 독거 어르신과 결식아동 100여 명을 위한 제과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임직원 및 가족, 지인 50명이 참가한 이번 봉사에서 봉사자들은 은평구와 성동구에 위치한 빵 나눔터에 집결해 빵을 직접 굽고 포장한 뒤 나눔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봉사에 참가한 삼정인들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정말 맛있는 빵을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가했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보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다”, “제과제빵이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강사님의 도움으로 쉽게 만들 수 있었고 좋은 일에 기여하게 돼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자녀와 같이 봉사에 참가했는데 즐겁게 봉사에 임해줬고 가정에 달에 뜻깊은 활동을 함께 해 뿌듯했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NK비즈포럼 8기 입학식 개최

북한·통일 분야의 최고경영자 과정인 NK비즈포럼 8기가 지난 6월, 입학식을 열고 13주 강의 일정을 시작했다. NK비즈포럼은 ‘대북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로서 기업들의 남북경협 및 대북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삼정KPMG와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함께해온 남북경협 최고경영자과정이다. 이번 8기 강좌에는 기업 CEO와 임원, 법조인, 금융인 등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입학식 후 첫 일정으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아울러, 오는 8월 말까지 매주 한 차례 진행되는 강좌에는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전 주 영국북한대사관 공사)을 비롯해 운영관 전 외교부 장관,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강사로 나선다. 한편, 본 포럼을 통해 북한의 현실 정책과 시장과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고, 대북 사업을 모색하는 기업 경영자와 각 분야의 리더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Notice]

“세미나 개최 소식 전합니다!”

제9회 ACI 세미나

일시: 7월 3일(월) 13:30~17:20

장소: 콘래드 호텔 서울(여의도) 3층 그랜드볼룸

참가비: 무료

문의: ACI 세미나 운영사무국

(02-2112-0296, kr-fmsamjongkpmgaci@kr.kpmg.com)

참가 신청: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ACI 세미나'에
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SG 웨비나

주제: “다가올 ESG 정보공시 의무화,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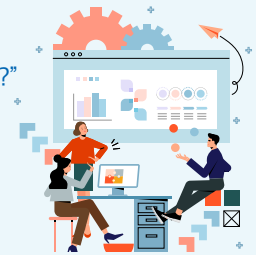
일시: 7월 6일(목) 14:00-17:00

진행: 온라인 웨비나

참가비: 무료

문의: BD&Markets 한혁 상무

(02-2112-7598, hyukhan@kr.kpmg.com)



제9회 ACI 세미나 주요 아젠다

Keynote Speech - 주주행동주의와 이사회 패러다임

Session 1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감독과 핵심 감사사항
논의에서의 감사위원회 역할

Session 2 : M&A 의사결정에서의 이사회 역할

Session 3 : ESG 경영과 이사회 활동

Session 4 : 패널토의 및 Q&A - ACI 자문교수단

ESG 웨비나 주요 아젠다

Session 1 : 다가올 ESG 정보공시 의무화 및 기업의 대응 시사점

- ESG 경영 및 공시 환경의 변화
- ISSB 공시 확정(안) 발표 및 대응 제언
- EU CSRD 및 공급망 대응 사례

Session 2 : 글로벌 ESG 정보공시 대응 방안

- ESG 정보공시 전략과 핵심 과제
- 핵심 과제 1 - 정보공시 Governance
- 핵심 과제 2 - 연결기준 공시
- 핵심 과제 3 - 기후변화와 재무 영향분석
- 핵심 과제 4 - ESG 정보공시 시스템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



삼정KPMG 아카데미
미리보기



정규 교육 과정

이슈 브리핑

비즈니스 리포트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